

Morning Meeting Brief

Macro

달러-원 급락에도 연내 1,350 원까지 추가 하락 예상

- 달러-원 수급 여건 빠르게 반전되며 10개월 여 만에 1,300원대 진입
- 단기 급락에 따른 부담 있으나, 주주환원 등 추가 환전 수요 여지 있어
- 달러 매도 우위 이어지며 연내 1,350원까지 추가 하락 가능할 전망

이정훈. jhoon.lee@daishin.com

Strategy

[다음주 시장은?] 엔비디아와 잭스홀... 2차 반등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

- 메모리 업황 및 AI 투자 사이클 건조, 대외 불확실성 요인 상존
- 엔비디아 2027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예정, AI 투자심리의 변곡점
- 잭스홀 미팅과 7월 PCE 발표 대기, KOSPI 밸류에이션 정상화 전망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퀀틴전시 플랜] 주주환원 기대에 반도체 급등, 장기 금리 부담도 완화

- 대규모 주주환원 기대로 분위기 반전, 반도체·지분가치주 급등
- 미 재무부 바이백에 장기 금리 진정, FOMC 의사록 경계감 잔존
- 외국인 순매수 속 업종별 차별화, 제약·소비재·증권 강세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Global Strategy

[THE GLOBAL 주간 증시 전략 / 8월 4주차]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견인차 역할 지속

- 미국 장기 금리 급등,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 확대라는 소방수 등장
- 26일 7월 PCE 결과, 7월 CPI 결과의 연속성 보여줄 것. 향후 물가 ↓, 금리 ↓, 위험선호심리↑ 기대 높일 것
- 미국 증시, 8월 초 사상 최고치 경신 후 자연스러운 눌림목 구간. 미국 기업 실적 감안 시, 미국 증시의 글로벌 증시 견인차 역할 지속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ssue Comment] 보험업: Time to Buy 손해보험! (보험업 투자의견 Neutral → Overweight 상향)

- 2분기 손해보험 3사 사상 최고 실적 달성, 보험/투자 손익 모두 호조
- 위험손해를 3사 모두 개선, 보험료 인상, 관리급여 도입으로 하반기 지속
- 업종 투자의견 상향, 삼성화재, 현대해상 최선후주 제시

박혜진. hyejn.park@daishin.com

- 엔비디아가 선택한 것은 LG그룹의 밸류체인
- 밸류에이션 반영이 기대되는 LG AI연구원
- 공백을 메우는 것은 흔들림 없는 주주환원

달러-원 급락에도 연내 1,350 원까지 추가 하락 예상

- 달러-원 수급 여건 빠르게 반전되며 10 개월 여 만에 1,300 원대 진입
- 단기 급락에 따른 부담 있으나, 주주환원 등 추가 환전 수요 여지 있어
- 달러 매도 우위 이어지며 연내 1,350 원까지 추가 하락 가능할 전망

달러-원 수급 개선 속 10 개월 여 만에 1,300 원대 진입

8/19 일 달러-원 환율이 10 개월 여 만에 1,300 원대로 하락했다. 지난 7/1 일 장중 1,559 원 선에서 거래되었으나, 불과 한 달 반 만에 170 원 넘게 급락했다.

달러 인덱스는 6-7 월 이후 약세 전환했다. 하지만 최근 원화 강세의 핵심은 수급이다. 7 월 SK 하이닉스의 ADR 발행액 환전을 시작으로 8 월에는 기업들의 법인세 중간 예납을 위한 환전 수요가 이어지면서 환시에서 달러 공급이 급증했다. 반면 상반기 환율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들의 주식매도는 7 월 국내 증시 조정 이후 상당 부분 진정되었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달러 매도 베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외환시장을 둘러싼 수급 여건이 한 순간에 뒤바뀌었다.

여기에 지난 1-2 년 간 환율 상승 과정에서 원화 약세에 대한 기대가 워낙 만연해 있었던 탓에, 환율이 특정 레벨을 깨고 내려오는 것 자체로 그간 지연되었던 다른 기업들의 달러 매도를 불러왔을 수 있다. 결국 상방으로 쓸림이 심했던 만큼 단기적인 되돌림도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단기 급락 부담에도 달러 공급 우위 국면 지속, 연내 1,350 원까지 하락 가능

그간 연기금과 개인의 해외투자 수요가 구조적인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다만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등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 지난해에 비해 어느 정도 안전판이 생겼고,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매입 추이도 지난해 대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대미투자 프로젝트도 일단은 기존 계획대로 외환시장에서의 신규 조달이 아닌 외환보유고 운용 수익을 통해 조달될 것이 유력하다.

거주자들의 해외 투자 확대라는 큰 추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절대적인 규모를 볼 때 지금처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환전에 나서는 국면에서는 이것이 지난해 하반기와 같이 외환시장의 수급을 교란시키기는 어렵다.

역사적으로 달러-원 환율은 위기 상황 직후를 제외하면, 하락기에는 대체로 -10~15% 수준의 조정을 거쳤다. 이미 고점 대비 -10% 가량 하락했다는 점과 주요 기술적 지표들이 달러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하락은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달러-원은 하반기 중 수급 여건 개선 속에 추가 하락을 시도할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나 국내 투자를 위한 자금 집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환전 수요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주요 심리적 지지선인 1,400 원을 예상보다 손쉽게 하향 돌파해 장기 추세를 이탈한 만큼, 당분간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도 주춤해질 수 있다.

단기 급락 폭을 감안할 시 추가 하락 속도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달러 매도 우위 국면이 당분간 유지되면서 연내 전저점 1,350 원까지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 연말까지 달러-원은 1,350 ~ 1,460 원 등락을 예상한다.

엔비디아와 잭슨홀...

2차 반등의 동력이 될 수 있을까?

- 메모리 업황 및 AI 투자 사이클 견조, 대외 불확실성 요인 상존
- 엔비디아 2027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예정, AI 투자심리의 변곡점
- 잭슨홀 미팅과 7월 PCE 발표 대기, KOSPI 밸류에이션 정상화 전망

메모리 업황과 AI 투자 사이클 견조, SK하이닉스 주주환원 기대 본격화

국내 증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여전한 변동성 장세. 이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영향으로, 메모리 업황과 AI 투자 사이클 훼손은 제한적. 코어워브와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실적 발표로 견조한 AI 수요와 투자를 확인한 가운데, 샌디스크도 인베스터데이를 통해 2028~30년 매출 10%대 중후반 성장과 매출총이익률 약 80%, 영업이익률 약 75% 유지 목표를 제시

여기에 SK하이닉스는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발표, 기존 FCF의 50% 내 주주환원 비중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며 주주환원 정책도 강화. 삼성전자 또한 8월 중 100조원대 주주환원 정책을 의결할 예정이라는 보도로 증시 상방 압력으로 작용

대외 불확실성 요인 잔존, 국제 유가 및 장기 금리 레벨 경계

다만 높은 레벨의 국제 유가와 금리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상존.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기한이 만료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결을 위해 이란의 항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오만이 협상을 방해할 경우 폭격 가능성도 시사. 여기에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예고하면서 미국-이란 갈등 지속되는 국면

또한 미국 장기채 금리의 상승세 두드러지며 위험자산 선호를 제한. 이에 미국 재무부는 장기 국제 매입 규모를 기존 최대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확대했고, 이후 장기채 금리의 상승세는 일부 진정

엔비디아 2027회계연도 2분기 실적발표 예정, AI 투자심리의 변곡점

다음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AI 투자심리의 변곡점이 될 전망. 다음 분기 가이던스 상향 여부와 함께 매출총이익률 방어, 블랙웰 랩탑 및 루빈 출하 전망을 확인할 필요. 또한 새롭게 발표한 AI 금융 플랫폼이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재무 부담을 제한하면서 외부 투자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을지도 점검

최근 빅테크 실적을 통해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신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긍정적인 가이던스는 AI, 반도체 전반 투자심리 개선, 증시 2차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음. 다만 대외환경 불확실성 지속에 따라, 실적 개선에도 상승 탄력 제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잭슨홀 미팅과 7월 PCE 발표 대기, KOSPI 밸류에이션 정상화 전망

한국시간 8월 26일 밤에는 미국 7월 PCE가 발표 예정. 현재 7월 PCE와 Core PCE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각각 +3.6%, +3.3%로 6월과 유사한 수준에 형성돼 있어, 최근의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지가 중요.

7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연준 내부의 물가 경계감 지속을 확인된 만큼, 잭슨홀에서는 케빈 워시 의장의 물가 관련 해석과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각을 확인할 필요. PCE에서 물가 둔화가 재차 확인되고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까지 완화될 경우 국제 금리 안정과 함께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 높음

현재 KOSPI 12개월 선행 PER은 5.59배로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위치한 반면, 12개월 선행 EPS는 1,225.9p로 6월 말 1,105.1pt 대비 상승 흐름 지속. AI 투자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디레버리징 압력도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 정상화와 지수의 반등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주주환원 기대에 반도체 급등, 장기 금리 부담도 완화

- 대규모 주주환원 기대로 분위기 반전, 반도체·지분가치주 급등
- 미 재무부 바이백에 장기 금리 진정, FOMC 의사록 경계감 잔존
- 외국인 순매수 속 업종별 차별화, 제약·소비재·증권 강세

대규모 주주환원 기대로 분위기 반전, 반도체·지분가치주 급등

SK하이닉스가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발표하며 분위기 반전, 기존 FCF의 50% 내 주주환원 비중을 50% 이상으로 상향하며 환원 정책도 한층 강화 이어서 직원 성과급의 40%를 당해 매도 가능한 자사주, 20%를 이연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 현금 유출 부담 완화와 주주·직원 간 이해관계 일치, 노사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 다만 앞선 주주환원 정책에 비해 주가 영향은 제한

반도체/지분가치주: 삼성전자(+9.5%), SK하이닉스(+12.7%), SK스퀘어(+11.9%)

미 재무부 바이백에 장기 금리 진정, FOMC 의사록 경계감 잔존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는 장기채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 장기 국채 매입 규모를 기존 최대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확대하면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 압력도 일부 진정

다만 7월 FOMC 의사록에서는 물가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된 가운데,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금융조달 확대와 주식시장 버블 가능성도 언급. AI 투자 확대가 향후 물가 압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며 증시 상승 탄력을 제한

현재 CME FedWatch 기준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65.2%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다만 미국채 10년물, 30년물 금리는 각각 4.67%, 5.23%로 소폭 하락

외국인 순매수 속 업종별 차별화, 제약·소비재·증권 강세

외국인 순매수 속 업종별 호재에 따른 차별화 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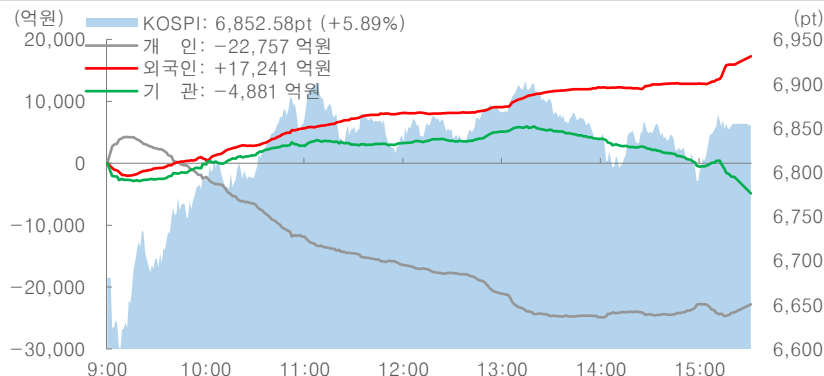
제약/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5.7%), SK바이오사이언스(+5.5%)

소비재: 삼양식품(+7.1%), 한국콜마(+7.8%), 코스맥스(+5.9%), 달바글로벌(+3.2%)

증권: 삼성증권(+8.7%), 미래에셋증권(+4.0%), 키움증권(+3.8%)

정유: S-Oil(-5.9%), GS(-5.1%), SK이노베이션(-2.3%)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Global Strategy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ng.moon@daishin.com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견인차 역할 지속

- 美 장기 금리 급등,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 확대라는 소방수 등장
- 26일 7월 PCE 결과, 7월 CPI 결과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 美 증시, 자연스러운 놀림목 구간. 실적 감안 시, 글로벌 증시 견인차 역할

미국 장기 금리 급등,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 확대라는 소방수 등장. 현재의 높은 장기 금리 수준은 불편한 요인이지만, 당장 미국 증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19일 미국 재무부는 기습적으로 국채 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회당 매입 한도는 기존 2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 이번 조치는 9월 9일부터 시작해 11월 4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발표 직전까지 미국 국채시장에서 이란 전쟁 발발 이후 10년 물 금리는 4.74%까지 올랐고, 30년 물 금리는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8일 미국 증시는 전일 대비 갭 하락하며 위험선호심리에 불뚝이 튀었다. 하지만 19일 국채 바이백 소식이 전해진 뒤 10년 물 금리는 4.63%까지 밀렸다가 4.65%로 마감하며, 미국 증시가 소폭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재무부가 밝힌 이번 조치의 목적이 유동성이 낮아진 발행물 국채의 시장 유동성 개선을 위한 것이다. 우선 심리적으로 앞으로 미국채 매도세를 줄이며 국채 금리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선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의 높은 미국 장기 금리 수준은 불편한 요인이지만, 당장은 미국 증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26일 7월 PCE 결과, 7월 CPI 결과의 연속성 보여줄 것. 향후 물가 ↓, 금리 ↓, 위험선호심리↑ 기대 높일 것

26일 발표되는 7월 PCE/근원 예상치는 전년동월대비 3.6%/3.3%로 헤드라인 기준으로 전월치를 하회할 것이다(근원 PCE의 전월대비 보합 수준, 시장 영향 제한). 이는 7월 CPI/근원 결과를 비슷하게 따르는 것으로 연준 정책금리(3.75%)를 하회하는 PCE 물가를 2번 연속 확인함에 따라, 향후 물가 하락, 금리 안정, 위험선호심리 기대를 높일 것이다. 7.30일 발표됐던 6월 PCE/근원 결과가 8월 5일 미국 증시의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7월 PCE/근원 결과는 8월 넷째 주에 미국 증시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을 시도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미국 증시, 8월 초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 후 자연스러운 놀림목 구간. 미국 기업 실적 감안하면, 미국 증시의 글로벌 증시 견인차 역할은 지속될 것

현재 미국 증시(S&P500)는 8월 초 역사적 사상치 경신 후, 장기 금리 급등을 이유로 기술적 분석 상 놀림목 구간에 놓여있다. 재무부의 기습적 국채 바이백 발표가 우선적으로 불편한 변수(장기 금리)를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해주면서, 앞으로 미국 증시가 추가 상승하는 다음 허들에 해당하는 실적 변수가 미국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를 높일 것이다. 현재 2/4분기 S&P500 EPS 증가율은 6월 말 23.1%(YoY) 증가에서 50.4% 증가로 큰 폭 상향 조정 중이다. 미국 실적을 감안하면, 향후 미국 증시의 글로벌 증시에 대한 견인차 역할은 지속될 것이다.

보험업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
권용수RA yongsu.kwon@daishin.com

투자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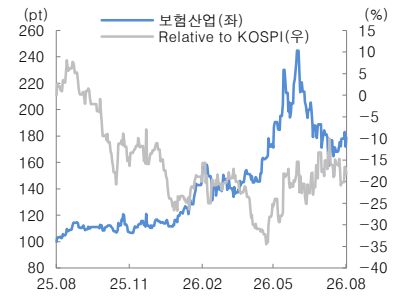
Overweight

비중확대, 상향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삼성생명	Buy	440,000
메리츠금융지주	Marketperform	140,000
삼성화재	Buy	870,000
DB손해보험	Buy	200,000
현대해상	Buy	59,00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8%	4.5%	25.4%	78.9%
상대수익률	-0.7%	10.0%	0.8%	-18.3%



Time to Buy 손해보험!

- 2분기 손해보험 3사 사상 최고 실적 달성, 보험/투자 손익 모두 호조
- 위험손해율 3사 모두 개선, 보험료 인상, 관리급여 도입으로 하반기 지속
- 업종 투자의견 상향, 삼성화재, 현대해상 최선호주 제시

2분기 3사 모두 하락한 위험손해율, 하반기 추가 하락 가능한 이유

2분기 주요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모두 하락, 1분기 대비 평균 3.1%p 하락하였음. 통상 2분기는 영업일수가 적어 손해율이 양호한 분기임. 관건은 3분기에도 추가하락 할 수 있을 지 여부. 우리는 추세적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1)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중심 보험료 인상이 이어지고 있고, 2) 무엇보다 도수치료 보험금 청구 감소 영향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 주지하다시피 7월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 1회 평균 단가가 135,000원에서 43,850원으로 크게 인하되었음. 금번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관련 영향을 알 수 있었는데, 일평균 청구금액이 삼성화재 4.5억원→ 2.5억원(추정치, 8월에만 1억원까지 감소), DB손해보험 3.3억원→ 2억원, 현대해상 6.5억원→ 4억원으로 평균 40% 감소. 도수치료로 집중되던 치료가 신장분사치료, 무통증신호요법, 체외충격파 등으로 분산되어 풍선 효과를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겠지만 도수치료 영향이 감소한 것은 자명. 특히 7월 제도 변경으로 6월말 청구가 몰린(청구는 7월에 발생)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청구 금액은 전술한 수치보다 감소할 것임

지양된 신계약 경쟁, 펀더멘탈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유

올 들어 회사별 보장성 인보험 신계약 GA 매출이 크게 감소. 요율 인상영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최근 신계약 경쟁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 어차피 내년부터 GA 설계사에게도 분급수수료가 지급되면 수수료 경쟁을 할 수 없지만 올해부터 속도조절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지금까지는 무리하게 신계약을 확보해서라도 CSM 순증을 지키려고 했다면, 최근에는 신계약 경쟁은 덜 하더라도 유지율 관리를 통해 CSM조정액을 축소시키는 데 주력하는 모습. 실제로 2분기 경상적 CSM조정액이 크게 감소했는데, 현대해상은 yoy +1,300억원 개선되었고, DB손해보험도 경상 조정액을 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당 분기부터 계리적 가정 선진화 방안이 적용되었는데, 건강보험을 제외한 비실손 갱신형 신규담보에 대해 보수적 손해율 가정(91%)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 가정 자체를 보수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하반기 예상차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12월 결산에는 건강보험으로 확대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CSM 감소는 있었지만 '27년 예상차 이익이 크게 발생할 전망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과 더불어 제도적 보완 지속

1분기 혼조세를 보이던 자동차보험손익이 2분기는 커버리지 3사 모두 흑자전환하였고, 1분기 흑자였던 보험사는 이익 폭이 확대. 올해 1월, 4년만에 기본+특약보험료 인상한 영향. 대부분 보험사에서 자보는 1분기를 저점으로 예상하였는데, 2분기부터 개선세가 시작. 3분기에도 보험료 인상 효과 덕분에 yoy 개선이 지속될 전망인데, 9월 10일부터 8주률이 적용됨. 통상 경상환자의 90%가 상해일로 부터 8주내에 치료가 완료되지만 일부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8주률은 경상환자가 8주이상의 진료를 희망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의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함

* 뒷페이지 계속

[LG NDR 후기]

엔비디아가 LG를 고른 이유

이경연 kyungyeon.lee@daishin.com 이채리 RA cherry.lee@daishin.com

2026.08.21

엔비디아 MOU

- (로봇) 엔비디아 아이작 그루트(Isaac GR00T)를 두뇌로 탑재한 LG 최초의 이족보행 로봇을 내년 1분기 중 공개
- (AI 팩토리) 미국 내 AI Factory 구축을 추진 중으로 LG의 스마트팩토리 경험이 긍정적 레퍼런스로 작용
- (자율주행)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AI 플랫폼과 LG의 IV(In-Vehicle Infotainment) 기술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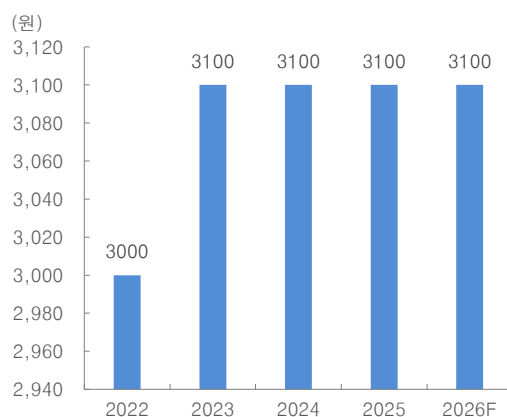
LG AI연구원

- (K-엑사원 2.0) 과기정통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向 모델로 국내 최대 파라미터 보유
- (LG-엑사원 5.0) K-엑사원을 베이스로 상업화한 자체 모델로 9월 중순 발표 예정
- 현재 100% 캡티브 매출이어서 사외매출 발생 시점(내년 기점 기대)이 시장 평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

주주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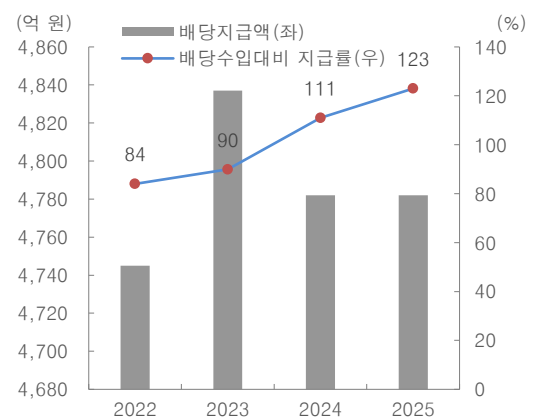
- 연간 DPS 3,100원 중 1,000원이 중간배당. 조만간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검토·결의해 발표할 예정이며 전년 수준이 기본 시나리오. 자회사(LG생활건강, LG CNS, HS애드) 중간배당 도입으로 분기 배당수익은 축소되었으나 3분기 반영 시 연간 배당수입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전망(FY25 3,893억원→FY26 4,280억원 이상)
- 기취득 자사주 보통주 3.9% 중 1.9%를 '25년 9월, 잔여 2.0%를 '26년 5월 전량 소각 완료해 현재 보유 자사주 없음. 올해 별도 당기순이익 개선폭이 배당성향 70% 이내에서 DPS 3,100원을 충당할 수준이면 신규 자사주 매입 검토

(주)LG 연간 DPS 추이



자료: L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배당수입대비 지급률, 순수지주사 중 가장 높은 수준



자료: L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